

# 나주시 세번째 AI 발생... 피해 눈덩이

### 남평 오리농장 1만7400마리 살처분... 농림부 비상근무체제 전국 살처분 1000만마리 육박... 최단기간 최대피해 우려

국내 최대 오리산지인 나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근 집중되고 있다.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정됐으며, 1곳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장 간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남평읍 한 씨오리 농장에서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져 시료 검사 결과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농장 오리들은 평소 9800개의 알을 낳았으나 전년에는 6200여개에 그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축산당국은 이 농장을 시 키우는 오리 1만7400여마리를 우선 살 처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확한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변경 3km 안에서는 4 농가에서

오리 6만6100마리, 3 농가에서 닭 22만 8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3~10km에서는 13 농가에서 오리 18만100마리, 24 농가에서 닭 118만9800마리, 2 농가에서 관 상 조류 6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발생 농장은 휴대전화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만큼의 산중에 있어 감염 경로에 궁극점이 될린다. 다른 농장과 역학 관련성은 없으며 나주호와 3km가량 떨어져 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살처분이 진행 된 지난 8일 나주 동강면 씨오리 농장은 H 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산면 농장에 이어 나주에서만 두번째 확진이다. 가장 최근 의심신고가 들어온 남평읍 농장도 확진 가능성이 커 확산세

가 심상치 않다. 나주 방역망 붕괴는 농장 간 수평감염을 통한 집단 발생으로 이어 질 수 있다.

2011년부터 전남과 나주의 AI 발생 현 황을 보면 2011년 23건 가운데 8건, 2014 년 68건 가운데 20건, 지난해 39건 가운데 10건이었다. 2012~2013년에는 도내 발 생 사례가 없었다.

전남도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은 모 두 9곳으로 늘었다. 해남(발생일 11월 16 일)을 최초로, 무안(11월 18일), 나주 공산 (11월 28일), 장성(12월 1일), 나주 동강(12 월 10일) 등 농장 5곳, 강진(11월 20일, 11 월 23일) 3곳, 해남(11월 30일) 1곳 등의 절 세도래지 4곳의 야생조류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의 패턴으로 볼 때 나주 남평도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높다"며 "발생지역 간 거리가 이동 등 역 학조사 결과 아직 농장 간 감염은 없는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11일 0시 현재 50건의 AI 의심신고 가운데 43건이 H5N6형 고병원 성 AI로 확진됐다. 의심 신고 외에 발생 인 점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적 도살처분 후 확진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7개 시·도, 23 개 시·군 127농가(신고 확진 43건, 예방적 도살처분 84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가 금류 수는 210농가 810만1000마리, 향우 155만5000마리가 추가로 도살 처분될 예 정이다. 지난달 16일 최초 의심 신고가 들 어온 지 25일만에 도살 처분된 마릿수가 1000만 마리에 육박한 셈이다. 도살처분 보상금 예상 소요액은 290억원에 달할 전 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최근 국경 상황과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연원성기자chadol@연원뉴스

## 광산구 실내골프연습장 '배재라 영업'

### 육상 주차장 불법 점유 3년째... 형사고발 등 수차례 단속 무시

광주 광산구가 불법 영업중인 골프연습 장<사진>을 적발,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 리고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해당 업체는 배 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가동 1014-4번 지 6층 건물의 옥상에서 지난 2013년 4월 부터 현재까지 2년 8개월이 넘도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실내골프연습장 영업을 이 루치고 있다. 해당 실내골프연습장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주차장 3486㎡ 부지를 불법 으로 점유하여 설치된 41면의 주차면적을 잠식한 상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 법 체육시설업을 운영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애초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 한다는 조건으로 주차 허용면적을 확보하 여 건축허가를 받았었다. 이 때문에 광산

구는 지난 2013년 7월 해당 사업주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50 만원을 부과했다. 광산구는 그럼에도 영 상회복이 되지 않자 지난 2014년 제3차 레 시정명령을 내린 후 사법 당국에 형사 고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게 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 같은 처벌에도 아 랑곳하지 않은 채 현재 수시로 장의 현수 막을 인근 도로 곳곳에 내걸고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최근 또다시 2차 레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사업주가 이 같은 배정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광산구의 바우치기 솜방 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주차장법을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해당 체육 시설설치법을 위반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돼 있다.

지역주민 A(49)씨는 "광산구 교통지도 과와 건축과 및 문화체육과 등 3개 부서가 단속 권한이 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곧바로 영업을 봉인조치하고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최근 재차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영업을 계속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위법 사항을 또다시 형사 고발조치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



“사랑의 온기 나눠주세요” 연말연시를 맞아 구세군 광주교회가 10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중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1    몰림 16:07  
해질 17:21    날짐 04:58

크 일교차 주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차차흐림	2/13
목포	차차흐림	3/13
여수	차차흐림	6/11
나주	차차흐림	0/13
완도	차차흐림	4/13
구례	차차흐림	-3/10
강진	차차흐림	1/13
해남	차차흐림	2/14
장성	차차흐림	0/12

◇ 바다 날씨

항목	오전	오후
서해안	북풍~동풍 0.5	북~북동풍 0.5
남해안	북풍~동풍 0.5~1.0	북동~북풍 0.5~1.0
남부	북풍~동풍 0.5~1.0	북동~북풍 0.5
남해	동~남동풍 0.5~1.5	동~남동풍 0.5~1.5
서부	북풍~동풍 1.0~1.5	동~남동풍 0.5~1.0

◇ 물때

항목	간조	만조
목포	05:32	12:42
	18:11	--:--
여수	01:08	07:41
	13:43	19:53

◇ 주간 날씨

날짜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날씨	☁	☀	☁	☁	☀	☀	☀
기온	2/13	-2/5	-3/4	-2/6	-3/9	-1/11	2/11

◇ 생활지수

- 보통
- 니출중
- 감기
- 체감온도

## 무등산 방공포대 광주군공항부지내 이전 검토

### 국방부도 긍정 의견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를 광주 군공항 공군부지 내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전까지 임시 조치가 긴 하지만 국방부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 져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시민의 숙원인 방공포대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1일 방공포대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정자권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무등산 정 상 방공포대를 광주 광산구 군공항 내 유희공간으로 옮기는 방안을 최근 국방 부에 제안했고, 국방부도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포대의 군공항 내 이전이 임시 조 치인 만큼 광주 군공항을 앞으로 7~8 년 이내에 옮기고 이때 방공포대도 함께 옮기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대체 부지 확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어져 최소 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전 사업비도 크게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이 전혀 진척 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공항에 방공 포대 등 기피시설만 모아놓는 셈이 될 수 있어 공황 주변 주민의 반발 우려된 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1심서 징역형

### 손금주 회계책임자는 벌금형

4·13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형 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의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 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 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반면 같은 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의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대로라면 손 의원은 의원직 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 상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도(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선거운동원 황모(53)씨에게도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과 손 의원은 모두 판사 출신 으로 국민의당 초선 의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 혈당조절

###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 (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도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삼백퍼(봉나무뿌리) 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판이식카팅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제 패티디자이너 잔 엔디나외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번호: 10-0562035호, 10-1097784호, 10-0548199호

2중외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